



호주의 그린전구 지원정책

기후변화 대책으로 그린전구 사용 촉진

호주의 2006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57억 6백만 톤으로 1999년 대비 약 5.2% 증가하였으며 이중 전기사용으로 인한 배출이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하였다. 특히 전구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총 2억 5천만 톤이다. 온실 가스가 대부분 에너지 사용의 결과로 인해 발생되므로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에너지 절약 및 이용 효율향상이야말로 기후 변화를 완화 시킬 수 있는 기본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호주도 그린전구 사용 촉진을 위한 계획을 마련했다.

2012년 까지 백열전구 퇴출, 에너지 효율 목표관리제 등 신규시책 발표

호주는 백열전구 사용을 단계적으로 철폐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2년까지 매년 80만 톤씩 줄인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호주 환경부에 따르면 백열전구의 사용을 중단함으로써 2015년까지 자국 온실효과 가스의 배출량을 연간 400만 톤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부 당국자는 백열전구가 열을 발산하기 때문에 전력을 낭비하고 있다며 형광등의 경우 백열전구 소비전력의 20%로도 같은 밝기를 내기 때문에 형광등을 전 세계에서 사용할 경우 상당량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표1] 백열등과 형광등 비교

	전력	온실가스 배출량 (대략)	구입가격	예상 지속시간	연간 전기사용비율
백열등 	75Watt	 3,600	\$1.00~\$1.20	1000~2000 시간	\$12.30
형광등 	15Watt (75Watt와 동치)	 730	\$4.00~\$10.00 (2~3팩 구입 시 더 저렴)	8000 시간	\$2.30

최소 에너지 작업표준(Minimum Energy Performance Standards)에 따르면, 백열전구 제품 중 15 lm/w 의 발광효율을 가진 전구는 모두 퇴출 될 것으로 보이며, 수입 여부 및 호주 시장에 유통 제한 예정일은 [표2]와 같다.

[표2] 수입 여부 및 호주 시장에 유통 제한 예정일

수입제한 예정일	유통제한 예정일	제품
2009.2	2009.11	일반 조명용 전구(GLS)
-	2009.11	저전압 할로겐 비-반사형 전구(ELV) 소형형광등(CFLs)
2009.11	2010.11	40w 장식용 원형 촛대구 메인 전압 할로겐 비-반사형 전구(MVH) ELV 할로겐램프 반사경
2011.11	2012.11	25w 장식용 원형 촛대구 파일럿램프(25W 램프와 그 이하) 모든 백열전구

각종 인센티브도 제공해

호주 정부는 에너지 낭비 요인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 효율향상에 자금을 지원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호주 정부는 에너지 절감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건설된 빌딩의 소유자에게는 평방피트 당 세금 \$1.80 을 절감해주고 있다.

소위 그린빌딩은 빌딩 디자인에 있어 공해를 유발시키는 에어컨, 난방시설, 조명장치 등을 에너지 절감 제품으로 교체하여 이로 인해 발생하는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 시키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친환경적이고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주택 건설과 이노베이션을 위한 “Your Home Technical Manual(www.yourhome.gov.au)” 을 참고하기 바란다.

미래 사회를 선도할 꿈의 LED 산업

호주 정부는 호주시장에서 백열전구 퇴출을 추진함으로써 LED 조명기기의 보급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LED 조명은 타 조명에 비하여 에너지 절감 효과가 크고 친환경적이라는 점 등의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호주는 조명이나 램프 종류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생산 업체들에게는 언제나 열려 있는 시장이어서, 향후 호주의 LED 시장은 아주 밝다. 우리 업계의 적극적인 공략 노력이 필요하다. 



왼쪽 주차장의 형광등을 LED로 교체 후의 모습